

# “갑질 그만”...택배 노동단체, 규탄 집회

### 노동계, 택배사 등 상대 처우 개선 요구 롯데택배 집하금지에 반발...“부당 행위” 로젠택배 비판도...“숨진 기사, 사회 타살” 택배 과로 문제 등 대두...곳곳 개선 요구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택배 관련 노동단체들이 26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의 행사를 연이어 진행했다. 이들은 개별 택배사와 정부를 상대로 규탄 목소리를 내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가 지난 25일 노조 소속 조합원 구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직장폐쇄와 다름없는 횡포”라고 했다.

이어 “지난 23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방노동위원회가 몇몇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이후 아무런 쟁의행위 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롯데택배는 배송 수수료를 삭감하면서 물량이 늘었으니 수입은 비수하하는 변명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과로사를 부추기고 있다”며 “갑

질행정도 극심하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분류작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하금지, 직장폐쇄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롯데택배는 집하금지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도 택배 관련 노동단체 행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숨진 채 발견된 택배 노동자 사례와 함께 과로사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로젠택배의 갑질과 구조적 문제가 모두 담겨 있다”며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한 계약서, 지점의 열악한 환경 등을 조사했고 고인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젠택배는 전국 지점들을 대상으로 권리금과 보증금 실태, 불공정 계약 문제, 다단계 계약 구조,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어 과로사 대책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강도 높은 실태 조사와 근로 감독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택배 관련 노동계 요구는 최근 과로사 문제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제기되는 모양새다.

분류 인력 확충 등 과로 구조 개선, 산업재해보험 적용 기준 손질 등에 관한 주장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가 세종 고용노동부 정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서울 도심 이외에서도 행사가 진행됐다.

택배업계 내에서는 과로사 등에 관한 사과, 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진은 11월부터 심야 배송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택배 노동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C대한통운도 지난 22일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 투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책을 발표했다.

신봉우기자

## 회원 모아놓고 시연회, 다단계 판매업자 2명 벌금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운영·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B(32)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30분께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광주 지역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회원 60여 명을 상대로 각종 제품 시연회를 개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이 금지됐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B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들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순창~담양’ 택시 훔쳐 만취 무면허 질주 고교생 검거

전북 순창에서 택시를 훔쳐 전남 담양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고등학생이 발빠른 경찰 공조로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6일 훔친 택시를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고등학생 A(17)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58분께 전북 순창군 자택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택시에 탑승해 집 앞까지 이동한 뒤 요금을 내줄 가족과 통화하는 시늉을 하다, 차량 밖에 나와있던 택시 기사를 밀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아닌 A군은 만취 상태였으며, 곧바로 광주를 향해 차량을 몰고 갔다.

순창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담양경찰은 A군이 훔친 택시를 발견해 추적에 나섰다.

A군은 경찰을 따돌리고자 과속운전을 하다, 지역 한 회전교차로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같은날 오전 3시15분께 검거됐다.

## 심야시간 탄력순찰 중 차탈이 피의자 검거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 금당지구대는 관내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상대로 현금 등 도난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차탈이 예방을 위해 범죄취약 시간인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탄력순찰을 실시하였

다.

지난 24일 오전 4시 20분경 순천시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차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무전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탄력순찰 중인 금당지구대 순찰차가 신속히 경광등을 소등하고 주변 일대를 면밀히 수색하여 30대 남자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피의자는 체포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 문을 당겼으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의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차량의 동전과 다액의 현금 지폐, 지역사랑상품권의 출처 및 용도에 대하여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영동고속도로 3중 추돌로 차량 화재, 2명 사망

26일 오전 10시5분경 경기 안산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안산분기점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불이 나면서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숨졌다.

경찰은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있던 5t 화물차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담양·보성 80대 노인 2명,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 전남 백신접종 후 사망 신고 8명으로 늘어



전남 담양과 보성에서 80대 노인 2명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맞은 후 숨져 전남지역 사망 신고가 8명으로 증가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담양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씨가 지난 21일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4일 만인 지난 25일 숨졌고, 보성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도 지난 19일 접종을 받은 후 6일 만인 25일 사망했다.

지난 23일 여수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C씨와 순천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D씨도 독감 예방접종 후 숨졌다.

C씨는 지난 22일, D씨는 지난 19일 예방접종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사망자 4명 모두 고혈압, 뇌졸중, 당뇨, 관절염, 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화순의 80대 남성, 순천의 80대 남성이 숨

졌고, 20일에는 목포의 90대 여성, 19일에는 영암의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목포, 순천(22일 사망), 여수 사망자는 독감백신과 연관성이 적으므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망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독감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57건이 신고됐다. 사망 8건, 발열 12건, 국소 이상 반응 9건, 알러지 10건, 기타 18건이다.

전남지역은 독감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111만2000명 중 50만3000명(45.2%)이 접종을 마쳤다.

보건당국은 독감백신 예방접종 전후로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